

우리나라 신문의 문장 검토

許 椿*

차 례

- I. 서론
- II. 본론
 - 1. 문장과 문단
 - 가. 번역체 문장
 - 나. 비문·악문
 - 다. 문장의 호응과 연결
 - 2. 문장 부호
 - 3. 띄어쓰기
- III. 결론

<요약문>

언론 본래의 사명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논평·해설을 통한 여론의 반영과 유도에 있지만, 글은 의사 소통만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니, 언론 매체 특히 국민의 교과서라 할 신문의 바른 우리말글을 위한 소임이 크다.

사실 보도와 논평이 위주인 기사문은 무엇보다 문장을 짧고 쉽게 써야 한다. 즉 평이성, 간명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서술어를 얼른 알 수 없고 호흡을 고려하지 않은, 요령부득의 긴 문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장에 치중하여 현학적으로 쓰려는 경향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나친 주어 생략, 주어와 술어의 불일치, 조사 오용, 지시어 중복, 추상적인 말 남용, 지나친 중복 표현과 중첩 오용, 어법에 맞지 않거나 어색한 말 사용,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사용, 시제의 혼란, 접속어 오·남용, 뒷말(뒷가지)의 부당한 생략, 사동·피동형 오·남용 등은 비문과 악문의 주요 원인이다. 정확한 접속어를 쓰지 않아도 앞뒤 문장이 호응되지 않아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문장 부호 오·남용과 부당한 생략 또한 글의 의미를 해치고 글을 난삽하게 만들어, 결국 쓴 사람 자신만 아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여러 오류는 결국 작성 기자만 알고 쓴 기사를 만들어, 정독해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제목은 일종의 포장이라 기사 정독(열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니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서론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언중(言衆)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강단이나 서책을 통해 백번 외쳐도 언론에서 쓰면 그것으로 고정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신문의 표기나 표현, TV의 자막 등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른다. 언론이 우리말을 가르치고 다듬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언론 매체는 발음, 단어, 외래(국)어, 문장 등 여러 면에서 우리말글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할 만한 지경이다. 단순한 오·탈자나 문법적 오류도 그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만, 그릇된 표현은 우리말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교열부가 축소 또는 폐지된 데다 마감 시간에 쫓기며 기사를 써야 하며, 독이성(讀易性)을 염두에 두고 자수(字數)와 여백까지 고려해서 편집해야 하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말의 체계가 어렵다고 해서 허물을 덮을 수는 없다.

언론 본래의 사명이 정확한 정보 전달과 논평·해설을 통한 여론의 반영과 유도에 있다고 보면 글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글이 의사 소통만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방송에 비해 갈수록 신뢰성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적어도 우리말글에서는, 신문은 국민의 교과서라 할 정도이니 소임이 크다. 신문을 교재로 교육을 하는 이른바 'NIE'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신문사가 자체의 '교열 지침'을 만들어 주지하고 있을 텐데도 그릇된 말이 자주 보인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군더더기 말, 부당하게 생략하는 뒷말, 조사의 오용을 포함하여 틀리거나 어색한 말, 생각 없이 쓰는 일(영)어식 단어와 관용구, 오·남용하는 외(국)래어, 번역체 문장, 비문(非文)과 악문(惡文), 작성 기자만 아는 문장(문단), 생략과 오용이 심한 문장 부호, 기준 없이 하는 띄어쓰기, 남용되는 한자어와 위축되는 고유어, 남용하는 로마자·아라비아 숫자·약자·속어 등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글말은 입말을 거쳐서 뒤에 나온 것이지만 지금은 글말을 바탕으로 입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자의는 아니지만 신문이 이를 거두고 있는 점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엽기(獵奇)'¹⁾처럼, 언어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얼마 전부터 유행한 이른바 '삼행시'나 '시러, 왜부짜바' 같은 컴퓨터의 언어를 보면 얼마나 우리말이 악화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조어법적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중딩, 넷땡, 컴시인' 같은 말이나, '허비(낭비), 겁간(강간)'²⁾을 '과소비, 성폭행(때로는 (성)추행)'이라 하는 경우를 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겠다. 다만 뜻의 왜곡과 변질은 늘 경계해야 하고, 언론 매체는 무의식중에 이런 말의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지 늘 자성해야 한다.

언론 매체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1) 괴이한 것에 흥미나 호기심을 가지고 좇아다니는 일을 말하는 '엽기'가, 지저분하고 때로 잔혹하기까지 하지만 새로운 충격을 줄 때 쓰는 말로 변하고 있다.

2) () 안은 일본식 한자어임.

이를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일은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오랫동안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에서 범하는 발음의 오류, 사전마다 제각각인 발음 표기 문제, '표준 발음법'의 보완점 등을 고찰한 데 이어, 신문의 틀리거나 어색한 말, 일(영)어의 잔재, 외국(래)어 오·남용 등을 실례를 들어 검토한 바 있다³⁾. 이제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번역체 문장이나 비문·악문 같은 신문의 문장을 검토한다. 이 작업은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교열부를 활성화하자는 뜻도 있다.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많은 자료를 다 들 수는 없고 극히 일부만 적시한다.

최근 2~3년간의 주요 전국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되, 대비를 위해 (주로 제주의) 지역지와 방송 등도 함께 예시한다. 필요시 기자가 아닌 필진의 글도 보였다. 여러 신문을 고루 검토하지 못한 것은 모든 신문을 정기적으로 보지 못한 필자의 사정 때문이다. 기사 본문 뿐 아니라 제목(이른바 헤드라인(head-line))을 많이 예시한 것은, 제목은 바로 눈에 띄는 일종의 포장이라 기사 정독(열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실명 비판의 필요성을 절감하긴 하지만, 한두 신문 외에는 편집 기자를 명

-
- 3)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a.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b.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a.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國語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집, 제주학회, 2002a.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틀리거나 어색한 말, 표현의 문제”, 「瀾州語文」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b.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論議-일(영)어의 잔재”, 「耽羅文化」 제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c.
 —,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濟州 地域 新聞의 外國(來)語 誤·濫用”, 「인문학 연구」 제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d.

기하지 않으므로 제목을 예시할 때에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성(첫 자음)만 밝힌다. 기사 본문을 보일 경우에도 같은 방식에 따른다.

우리말에 대한 여러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규범적인 표기를 전제로 하고 검토하되, 쟁점이 있으면 개인적인 견해도 짧게 피력하였다. 글의 성격상 이론적인 논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실 어와 신문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I. 본론

1. 문장과 문단

가. 번역체 문장

‘빈축을 사다(嘖聲を買ら), -에 다름 아니다(-に ほかならない), -에도 불구하고(それにもかかれらず),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 같은 말은 외국어 특히 일(영)어를 직역하여 쓰는 예이다. ‘저는 자녀 둘을 가지고 있는 주부입니다.’ 같은 말도 영어식이다. ‘진단을 필요로 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같은 말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요즘 방송이나 글에서 흔히 듣는(보는) ‘나쁘지 않아!’는 ‘Not (so) bad!’의 직역이다. “요즘 어때?, 이것 어때?” 하고 물으면 “그저 그래(그럭저럭, 그럭저럭, 괜찮아!)” 정도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식이다. 특히 방송극에서 이런 말을 남발하고 있으니 방송 작가들의 주의도 촉구한다. 근래 젊은이들이, ‘어허(uh-huh)’를 버릇처럼 쓰고 말을 시작할 때 ‘엄(U-m-m)’ 운운하는 것도 영어의 영향이다. 심지어 ‘앗(차)!, 예구머니!’ 대

신 'oops' 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외국어(특히 영어) 모방과 선망에 따른 걸맞이다. 우리말의 발어사로는 '저, 음, 거시기' 등을 들 수 있겠다.

수정이 사랑하는 배진호는 이미 아들 하나를 가진 이혼남이다.(01.2.5. 조선 35면 ○ 기자 제목:“우울한 캐릭터 벗어 훌가분.”) 우리식은 '아들 하나를 둔' 이다. 제목의 '훌가분'은 어근이므로 뒷가지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없다.)

나는 이상한 버릇 하나를 갖고 있다.(01.6.14. 문화 7면 '女論輿論' ㄱ 교수 제목:어머니들의 해방,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다.'가 우리말답다.)

“--- 안전 운항은/교통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01.6.22. K1TV 뉴스9 제주 뉴스 ○ 기자/02.5.4.07:30 K1TV '뉴스 광장' 제주 뉴스 진행 아나운서(남))

교육·취업·주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01.8.24. 중앙 6면 '오피니언'의 '노트북을 열며' ㄹ 기자 제목:듣기 싫은 말 필요한데..., 이때의 '지나치다'는 형용사이니 '않는다'는 '않다'라야 옳다.)

몸무게가 350kg인 야브로는 --- 현역 스모 선수 가운데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 중 한 명으로, ---(02.4.4. 동아 A25면 '투데이' 프라하 AP 연합 무기명 제목:몸무게 350kg/“내가 스모 챔피언”, 번역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

---국립오페라단의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02.4.12. 중앙 19면 '문화'의 '문화노트' ○ 기자 제목:1년에 4번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이회창 후보로 표 쏠림이 이루어지면서 ---”(02.4.30.21:30 K1TV 뉴스9 보도 기자(남), '표가 쏠리면서'가 우리말답다.)

'-(하/되)고 있다(ている)', '-에 있어서(의)(に於いて)' 같은 말은 군더더기이거니와 일어의 번역이다. 일어의 직역이지만 완전히 버리기도 어려운 '과(와)의(との)', 'への'를 그대로 옮긴 '-(으)로의', 일어식인 '의(の)'의 중복 등 우리말법과 다른 조사는 주로 일어에서 나왔다.

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

4) 모든 인용은 원문대로이며, 바뀌는 문장과 단락은 /와 //로, 원문의 줄임표는 ...로, 필자가 줄임 부분은 ---로 표시한다. 신문명의 '일보, 신문'은 생략하고, 기사 의 면수와 제목을 밝힌다.

[모호(模糊)함]을 낳는다.(‘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 부호’(1988.1. 문교부 고시)의 예문, ‘성명에 있어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한글 맞춤법 해설(제28항)’(‘국어 어문 규정집’(문교부, 1990)) 같은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 평소의 자연스런 읽기 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국어 정서법 연구’(태학사, 1999. 459쪽), ‘읽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처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스런’은 ‘자연스러운’이라야 옳다.)

---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01.6.14. 문화 10면 초 기자 제목:활력 되찾는 전경련, ‘분석된다’면 족하다.)

--- 질적인 측면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 (01.11.8. 한국 2면 ‘종합’ 사설 제목:최악의 청년층 실업사태)

(독과 향아리는) 그 크기에 있어 조금 다릅니다.(02.4.3.17:00 K1TV ‘바른 말 고운 말’⁵⁾ 해설 아나운서(여)⁶⁾)

단어도 번역투의 말이 많다. 이를테면 ‘효과’란 보람이 있는 결과를 이르는 말인데도 긍정적이기는커녕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도, ‘영향’은 놔두고, ‘효과’ 심지어 ‘부정적 효과’라고까지 한다. 이는 영어의 ‘negative effect’를 직역한 결과이다. 물가가 인상되는 것도 ‘효과’인지 의문이다. ‘뜨거운 감자(hot potato), 자리매김하다, 좋은 아침(good morning), 지속 가능한(sustainable), 풀뿌리(grass roots)’ 같은 말도 같은 맥락이다⁷⁾.

“--- 환율이 십 원 인상되면 기름 값이 이십 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5) ‘바른 말/바른말’은 주 22)를 참고 바란다.

6) 약자나 로마자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편의상 로마자로 줄여서 표기한다. 연도는 뒷부분만 줄여서 표기하고, 프로그램이 연속될 경우 자정을 넘겼어도 그 전날로 표시하였다. 필요시 10분 단위의 방송 시간과 진행자의 성별을 밝혔다. TV 자막을 제외한 방송 인용은 큰 따옴표(“”)를 하였다.

7) ‘명사+하다’가 아닌, ‘자리매김’이라는 명사형에 ‘-하다’가 붙은 말 곧 ‘자리 매기다’가 아닌 ‘자리매김하다’는 군더더기이며 영어식 조어이다. 정부조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라 하지만 이는 번역체이다. ‘좋은 아침’은 ‘상쾌한 아침(입니다)!’ 나아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우리식의 인사법이 자연스럽고 품위 있다. 근래 ‘서민, 민중’의 뜻으로 쓰는 ‘풀뿌리’도 영어의 직역이다. ‘풀뿌리’는 ‘풀의 뿌리=草根’이다.

---”(97.11.10.16:40. MBC TV ‘MBC 뉴스 센타’ 제주 뉴스 아나운서(여))
--- 오는 100년의 숙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99.12.31. 조선
선 제목:“100년의 뒀안길에서”, ‘--- 종가(宗家)로 자리매김시킨 ---’
(02.4.10. 한국 6면 ‘오피니언’의 ‘기자의 눈’ ㄱ 기자 제목:인삼중주국 뺏기
고도…)과 ‘--- 전문가로 자리했다.’(02.4.10. 세계 16면 ‘기획’ 청양=ㄱ 기
자 제목:참깨 청정양식 연6억 소득)/‘--- 문화 상품으로 자리했습니다.’
(02.4.12.21:40 K1TV 뉴스9 제주 뉴스 ㄱ 기자)를 비교해 보면 두 말의 차
이를 잘 알 수 있겠다.)

“좋은 아침!”(00.4.8. K2TV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〇 아나운서(남), 프
로그램 이름부터 영어식이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99.7.19. 동아 ㄴ 기자
제목)도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풀뿌리 출신들이 --- (00.4.14. 조선 ㄱ 기자 제목:“떠오른 新人들”)

“현대전자 박중섭사장 “오너결단 긍정적효과”(00.6.6. 한국 ‘라운지’ 〇 기
자 제목, ‘긍정적’은 불필요한 말로 ‘positive’의 번역이다.)

하지만 이번 공습은 ---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
다.(01.2.19. 동아 〇 기자 제목:계산된 공습… ‘힘의 외교’ 과시)

나. 비문·악문

역어체는 물론이고 지나친 주어 생략, 주어와 술어의 불일치, 조사 오
용, 지시어 중복, 추상적인 말 남용, 지나친 중복 표현, 부호의 부당한 생
략을 비롯한 문장 부호 오·남용, 어법에 맞지 않거나 어색한 말 사용,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사용, 시제의 혼란, 접속어 오·남용, 뒷말
(뒷가지)의 부당한 생략, 사동·피동형의 오·남용 등은 비문과 악문의
주요 원인이다. ‘한글은 뛰어난 한국의 문자이다. 그는 어제 서울을 떠
나 제주에 왔다.’처럼 자신만 알고 쓰는 문장이나, 호흡을 고려하지 않
은, 너무 긴 문장 또한 경계해야 할 일이다. 신문의 문장은 평이성, 간명
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문장이 길어지면 글의 초점이 흐려진다.

이러한 오류는 결국 작성 기자만 알고 쓴 기사를 만들어, 정독해도 글
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수식어가 지나치게 많은 문장에서는
물론이요, 문장 자체로는 특별한 오류가 없지만 눈치로 뜻을 헤아려야

하는 기사도 있다. 나아가 수수께끼처럼 풀이하다가 포기해야 하는 글은 독자를 곤혹스럽게 한다. ‘난방을 위해 문을 꼭 닫읍시다.’에서 보듯이,⁸⁾ 문장의 뜻을 바르고 명확하게 나아가 매끄럽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기사를 쓸 때는 치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위에 든 여러 가지 사항이 중복된 문장이 많으나 서술의 편의상 한 항목에서 검토한다.

1) 지나친 주어 생략 : 주어 생략은 우리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 매체의 문장은 주어를 명시해야 바람직하다. 주어를 생략하면 자연히 서술어에 대한 주체가 모호해져서, 독자가 알아서 추정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글이 된다.

‘왕따’ 가해 부모 상대 구상권 청구(00.5.13. 중앙 3 기자 제목, 교육청, 정부, 보험회사 등 중에 누가 청구한다는 말인지 모호하다. 제목이지만 ‘교육청, ‘왕따’ 가해 ---’ 식으로 주어를 명기해야 좋다.)

외환은행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을 달래기 위해 “부실은행과의 합병 또는 지주회사 설립을 하지 않겠다”며 ‘외환은행=부실은행’임을 간접 지칭한데 대해 격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01.3.5. 한국 0 기자 제목:외환은행 “안풀리네”, ‘격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노조원들일 것이나, 기사 전문(全文)을 읽어봐도 주어가 없으니, 누가 ‘노조원들을 달래’고 ‘간접 지칭’했는지 알기 어렵다.)

주현·최양락 성대모사(01.10.8. 한국 19면 ‘TV 마당’의 ‘채널선택’ 무기명, TV 프로그램 소개 기사, 얼핏 주현과 최양락이 남의 성대를 모사한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신인 연예인들이 주현·최양락·김진수의 목소리를 흉내 낸다는 기사이다. ‘신인들, 주현(·최양락)의 성대모사’ 정도로 주어를 명시해야 혼란이 없다.)

2) 주체가 불분명한 문장 : 말하는 주체가 모호한 문장이 특히 언론 매체에 많은 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까지 생각한다. 자기나 자기 무

8) ‘꼭’은, ‘힘을 주어, 꼭’인가 ‘조금도 틀림이 없이’인가 아니면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말하는가? 주 3)(2002b:48)에서 검토한 바 있다.

리를 대표하여 스스로 일컫는 말이 '우리'인데, 독자((시)청자)를 은근히 포함한 듯한 '우리' 처럼, 누구를 일컫는지 그 범위가 명확지 않은 '우리'를 남발하는 일은 당혹감마저 준다. 이를테면 '우리 서민들'(00.4.10.09:40, K1TV 뉴스9 ◦ 10당 선대위원장의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호하다. '전(全) 세계 사람, 우리나라 (사람)', '우리 회사, 논설(해설) 위원실, 출입 기자단, 나(개인)'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되는 '우리'가 후자를 의미한다면 '저(회)'라 해야 옳다. 습관적으로 쓰는, '---으로 우려된다, ---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말도 동일한 맥락이다⁹⁾.

문제의 근원은 무리한 과외정책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01.4.11, 한국 사설 제목:충격적인 서울대생 학력)

--- 합참1차장직을 부활하는 것도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지적이다.(01.10.7. 동아 5면 '종합' ◦ 기자 제목:육군총장 李南信 내정설속/軍수뇌人事 막판 역풍 관심, 누구의 '지적'인지 알 수 없다.)

"--- (운전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통역 전화를 모든 택시에 설치하려고 하여, 제주도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01.11.13, K1TV 뉴스9 제주 뉴스 1 기자(남), 누구의 빈축을 사는지 불분명하다. '빈축을 사다'는 일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3) 주어와 술어의 불일치 : 속보성 때문이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비문이 적잖다.

선들러는 나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수 물자 생산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구실로 폴란드내 나치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으로 빼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다.(99.10.18, 조선 1 기자, '선들러 리스트' 원본 발견 기사, 호홉보다 긴 문장이라 반점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 문장이다. 무엇보다도 '선들러는 --- 목숨을 구했다.' 이니 선들러가 자신의 목숨을 구(救)한 꼴이 되었다. 따라서 '선들러는 ---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 또는 '선

9)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더 폭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실에 있는 동료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뜻(02.3.23, 동아 A10면 제목:월街 신문기사를 뒤집어보니...)이라는 말도 참고할 만하다.

들러는 ---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라야 매끄럽다.)

지난 10월 뉴욕영화제에서 '도그마(Dogma)'가 개봉했을 때, 극장 앞은 성모 마리아 초상과 함께 ---(00.6.16. 한국 B 기자, 영화 '도그마' 소개 기사, '도그마(Dogma)'를 개봉했을 때' 또는 '도그마(Dogma)'가 개봉됐을 때' 라야 한다.)

담배수입이 자유화했을 때 외제담배 시장점유율이 ---(02.3.25. 한국 6면 '오피니언'의 '지평선' 7 논설위원, '담배 수입을 ---' 이라야 한다.)

4) 주어와 술어의 거리가 먼 문장 : 주어와 술어 사이에 긴 수식구나 삽입구(절)가 들어가는 바람에 뜻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다. 주어와 술어는 가까울수록 뜻이 명확해진다.

법정을 가득메운 방청객들은 사연은 달라도 똑같은 살인죄로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두 여인이 심판을 받는 진기한 광경을 지켜보며 착잡한 표정이었다.(99.1.22. 문화 7 기자, 방청객들의 사연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니, '방청객들은,'으로 주어부를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 이보다는, '사연은 달라도 --- 지켜보며, 법정을 가득메운 방청객들은 착잡한 표정이었다.'처럼 주술부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총회에서 비정부기구(NGO)들이 세계화 때문에 빈부격차가 오히려 심화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00.10.3. 문화 케임브리지(영국)=S 기자, IMF 총회에서 주장한 사람이 장 교수인지 NGO인지 모호하다. '장교수는, --- 대해,' 또는 '국제통화기금(IMF)총회에서 --- 대해, 장교수는' 이라야 혼란이 없다.)

5) (피)수식어의 부적절한 위치 : 수식어와 피수식어도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하고 연관 관계를 명확히 해야 의미의 혼란이 없다. 한 예로 '화려하게 장식된 말의 안장'은, 화려하게 장식된 것이 말인지 안장인지 알기 어렵다.

김대통령은 현 사태를 이총재의 통치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해하고 있고 ---(99.1.5. 조선 4면, 이 총재의 통치권에 누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총재가 김 대통령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통치권에 대한 이총재

의 정면 도전' 이라야 오해가 없다.)

최근 큰 사건 모두 대충 마무리(99.6.3. 한국 '독자의 소리' 제목, '마무리 대충' 이라야 내용과 맞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아그라를 먹고 성관계를 갖던 70대 노인이 뇌졸중을 일으켜 반신마비가 됐다는 보도다.(99.7.30. 동아 '횡설수설' ㅈ 논설위원 제목:비아그라 '警報', 비아그라로 일으킨 뇌졸중이 처음이지 70대 노인이 처음으로 비아그라를 먹은 것이 아니다. '비아그라를 --- 70대 노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아그라를' 로 고쳐야 한다.)

갑자기 아픈 시어머니·시누이를 맞게 된 남동생 부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01.8.3. 중앙 5면 '종합' ㅁ·ㅈ·ㅈ 기자 제목:40세 아들 수발 칠순 老母 한숨, 부제:(下)설 땅 없는 자폐 성인들, 시어머니는 전부터 신경통으로 고생해 왔고 손위 시누이는 자폐 장애인인데 이들을 갑자기 수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편찮은 시어머니와 자폐 시누이를 갑자기 맞게 된' 이라야 제대로 전달되는 말이다.)

北 "비극... 충격" 이해적 테러 비난(01.9.13. 조선 21면 '종합' 연합 제목, 북한이 이해적인 테러를 비난한 것이 아니고 이해적으로 테러를 비난했다는 기사이다. '테러 이해적 비난' 또는 '이해적 '테러 비난'' 이라야 적확하다.)

부끄러운 기자들의 금품수수(02.3.9. 문화 6면 '사실' 제목, '기자들의 부끄러운 금품수수' 라야 적확하다. 이를테면, '경찰의 부끄러운 역사 왜곡'(02.4.27. 동아 A2면 '종합'의 사실 제목)을 '부끄러운 경찰의 역사 왜곡'과 비교해 보면 양자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이제 혈혈단신이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이 인제 민주당 고문. 20일 경선에서 대세를 잡기 위해 잠바를 입고 버스 한 대로 전국을 누비며 500만표를 얻었던 97년 대선 때로 되돌아갔다며),(02.3.21. 동아 A6면 '오피니언'의 '말말말', 20일 경선에서 버스 한 대로 누빈 게 아니므로 '대세를 --- 되돌아갔다며.(.) 20일 경선에서,' 또는 '20일 경선에서, 대세를' 이라야 혼동이 없다.)

6) 조사 생략과 오용 : 조사 사용은 논란도 많고 띄어 쓰지 않는다. '의'를 비롯한 조사의 중복이나 '로의, 에로, 에서의, 으로부터의' 등 우리말식이 아닌 조사의 남용은, 어색하고 바르지 못한 문장을 만든다. 강조 효과가 있지만 자칫 문장의 탄력성을 상실하기 쉬운 '도'의 중복, 문장이 거칠어지고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며 음률이 매끄럽지 않게 되는 '은(는)/이(가)'의 중

복, 자연스럽지 못한 ‘을(를)’의 중복, 전체적인 주어와 연관되는 ‘은(는)/이(가)’의 혼합 등 조사를 섞어 쓸 때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은(는)/이(가)’가 섞일 때는, 대체로 전체적인 주체, 문장의 대주어에 ‘은(는)’을 써야 매끄럽다¹⁰⁾. ‘과(와)의, ‘로부터의, 로의, 에로, 에서(의)’ 같은 조사는 이미 굳어졌다고 볼 수 있고, ‘-(으)로서의’처럼 ‘말할 이의 의도와 어휘 결속의 경향상’¹¹⁾ 효율적인 말도 있다. 그러나 구태여 이런 조사를 쓰지 않아도 될 자리에 이를 남용 나아가 오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① 지나친 조사 생략 : 꼭 필요한 때가 아닌 데도 ‘독서를 하다, 물품 청구를 하다’처럼 불필요한 조사를 넣는 일과 더불어, 조사를 부당하게 생략하는 일은 비문이나 악문이 되는 한 요인이다. 생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제목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중등사회과교육연구회 ‘4·3세미나’/중·고 교사들 ‘4·3이해’ 한 문(00.5.2. 제민 3면 7 기자 ‘해설’ 제목, 질의 응답을 통한 교사들의 논쟁이 4·3 연구에 기여했다는 뜻이라면 ‘중·고 교사들이’라야 매끄럽다. 기사 전문을 살펴봐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중·고 교사들의 4·3이해에 한 문’이라야 기사의 의도에 더 가깝지 않은가 한다. ‘4·3이해’의 작은 따옴표(°)는 별 의의가 없다.)

“해녀노래 제주여성 대표적 민요/김춘심씨 생생한 해녀의 삶 발표” (00.11.25. 제주 0 기자 ‘도여성특위 제주여성사정립 3차 워크숍’ 보도 기사의 중간 제목, ‘해녀노래’ 다음에 반점을 찍거나 조사[는]를 써야 매끄럽다. ‘해녀의 삶’을 김춘심 씨가 발표한 것처럼 읽히지만 발표자는 따로 있다. “해녀노래는 제주여성(의) 대표적 민요/해녀 김춘심씨의 생생한 삶’ 발표”로 고칠 말이다. 기사는 논제를 인용한 것이겠지만, 최근에 주로 쓰인 일본어 ‘해녀’보다 ‘잠녀(潛女)(잠수(潛嫂))’가 바람직하다¹²⁾.)

10) Cf. 李炳甲, “격조사의 중복에 대하여”, 「말과 글」 제68호, 한국교원기자회, 1996. 38쪽.

11) 장재성, “文章의 凝縮化와 ‘의’ 처리-‘의’ 표현과 교열의 문제-”, 「말과 글」 제68호, 한국교원기자회, 1996. 28~29쪽.

12) Cf. 주 3)(2002a) 28쪽.

--- 네 번이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지네면 황당무계한 서부극에도 ---
 (01.9.15. 중앙 37면 'ON TV'의 '일요영화' s 기자 제목: 한 수녀의 파란만
 장한 인생, 영화 '파계' 소개 기사, '지네면'은 감독 이름이다. '지네면은',
 '지네면.', '지네면,' 등으로 고칠 말이다.)

이회창 "대통령도 조사 받아야"/노무현 "DJ 적절히 처리할 것"(02.4.25. 동
 아 A1면 s·g 기자 제목, 본문 끝 부분에 '반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 "대통령이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며 ---"고 말했다.'는 말이 있으
 니 짐작할 수는 있으나, 제목만 보아서는 'DJ를 적절히'인지 'DJ가 적절히'
 인지 알 수 없으므로, 설령 상·하단이 맞지 않더라도 조사를 쓰는 것이 바
 람직하다. 'DJ, 적절히'도 무방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② 틀리거나 어색한 조사 사용 :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조사를 반복하
 거나, '상식을 벗어났다, '회사를 가야 한다' 처럼 틀린 말을 보인다.

㉞ -가, -이 : 민주당이 전례없이 정책의장뿐 아니라 산하 정조위원장들이
 현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부처 장관들과 소그룹 당·정회의를 연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김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으로 해석된다."(00.5.7. 문화 o 기
 자 제목: '힘있는 여당-강력한 정부' 만들기, 반점을 활용하거나 두 문장으로
 나누면 좋을 글이다. 무엇보다도, 같은 조사[이]가 중복되어 매끄럽지 못하
 다. '현안이 발생할 경우 민주당이 --- 정조위원장들도(까지) 관련부처 장관
 들과 --- 방침을 정한 것은(도), 김대통령의' 정도로 고칠 문장이다.)

㉞ -(라)고 : '라고'는 동사의 연결어미와 서술격조사의 활용어미로 쓰는
 말인데, '고'는 직·간접 인용에 모두 쓰이고 '라고'는 직접 인용에만 쓰인
 다. 그러나 '인용' 이랄 것도 없는, 단순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표현할
 때도 '~다라고', '~다라는' 따위로 표현해서 듣는 사람을 '역겹게' 한다".
 '라고'는 속된 말이 되기 쉬우니 단어(어구)에나 쓸 일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한글 맞춤법' 부록 '문
 장 부호'(1988.1. 문교부 고시))

"언어란 --- 전달 체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99.1.10. EBS TV 국
 어학 강의(여))

㉞ -라도 : 전직 대통령이라도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자신의

13) 이수열, "해괴하게 쓰는 인용 조사 '라고, 라는'", 「말과 글」 제71호, 한국교원기
 자회, 1997. 44쪽.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다.(00.10.22. 동아 사설 제목:YS '정치 복귀' 유감, '-라도'는 앞의 말을 뒤집거나 같지 않은 사물을 구태여 구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조사이니, '대통령이라도'는 '대통령이'라야 타당한 문장이다. '대해서'는 '대해서'가 매끄럽다.)

㊸ -에게(서) : 덕분에 취임 6개월 만에 대전시향 정기회원(연회비 3만원)이 3백명으로 늘어났다. 젊고 실력있는 연주자들에게 입단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01.7.3. 중앙 46면 '프리뷰&리뷰' 대전=○ 음악전문기자 제목:대전시향 반년만에 거듭났네, 연주자들이 시향에 입단을 문의한다는 말일 테니, '연주자들에게'는 '연주자들의'라야 한다.)

㊹ -(으)로부터, -에서부터, -한데서 : '-(으)로부터'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시작 또는 비롯됨을, '아마 여기에서부터 두 시간은 걸어야 할 거야.'처럼 '에서부터'는 움직임의 출발점을 말하니, 뜻은 비슷하지만 그 쓰임이 다르다. '한데서'는, '에게서'의 뜻이 되, 통속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선생님, 애인한테 편지 왔어요.(99.7.31. 한국 21면 '충통신' 광고 문안, 젊은 여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장면이다. 앞뒤 상황으로 보아, 편지는 선생님의 애인에게 온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애인이 선생님에게 보낸 것이다. '선생님, 애인에게서(한데서) 편지 왔어요.'라야 한다. 이대로라면 선생님 애인의 컴퓨터를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 애인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 되어, 문안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최근 일본에 2년간 체류했던 S씨(63·여·제주시 일도2동)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난 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납부했던 보험료 22만4620원을 환불받았다.(01.6.23. 제주 22면 ㄱ 기자 제목:보험료 면제사유 몰라/부담하는 사례 늘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는 문장의 주어가 단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에서'가 바람직하다.)

7) 지나친 중복 표현, 중첩 오용¹⁴⁾ : '각 회사마다, 같은 또래, 과반수 이상, 매분기마다, 미리 예측하다, 장기화(化)되다, 첫 데뷔작' 같은 중복 표현은 분명히 고쳐야 할 말이지만, '몸보신, 역전앞' 등을 볼 때, 이 점은 우리말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굳은 말을 쓰더라도, 특히 글에서는 중복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문맥에 따라 조절할 일이다.

14) 주 3)(2002a) 37~39쪽에서 일부 검토하였다.

---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신한 반면 구성이 단조로워 --- (99.1.4. 조선 27면 '99 신춘문에 당선작 심사평(동화) ㅈ 작가, '(바라)보는 시각'은, '남영신 회장은 --- "언어를 보는 시각이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02.4.6. 조선 47면 'Books 책과사람', ㅈ 기자 사진 설명, 기사 제목: "지식인이 먼저 우리말 제대로 써야조")처럼 일반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 학교를 스스로 자퇴해 버린다." (00.3.27. K2TV 'TV 명인전' 해설 ㄱ 성우(남))

"용현은 뛰어난 절경을 사랑하고---" (00.5.3.21:40 제주 K1TV 뉴스 ㄱ 기자, '뛰어난'을 빼거나 '뛰어난 경치를' 이라야 한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본인명으로 개설을 하고 증권카드나 인감을 증권사 직원에게 보관시켜서는 안된다. (00.5.7. 문화 11면 ㅎ 기자 제목: 증권관련 분쟁 급증...1분기만 400여건, '개설할 때는 --- 개설을 하고'는 불필요한 중복이니 '개설을'을 빼야 한다. '본인명의, 보관시켜서는'은 각각 '자신의 명의, 보관해서는' 이라야 옳다.)

--- 전체교수의 과반수가 넘는 317명의 교수들은 --- (01.1.1. 교수 194호 ㅅ 대학교 교수협의회 광고)

--- 아직 안정화돼 있지 않은 열악한 케이블방송 시장이 --- (01.5.30. 세계 20면 ㅇ 기자 제목: YTN '뉴스채널 추가승인'에 반발, '안정화돼'는 어색한 중복이고, '있지 않는'은 '있지 않은' 이라야 한다.)

17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아 을 최고기온 기록을 --- (01.8.18. 동아 30면 '사회' 사진=ㅈ 기자 사진 설명 제목: 하늘은 벌써 가을, '치솟아'가 있으니 '최고기온'을 중복할 필요가 없다. '낮 기온이'면 족하다.)

열강들 '反테러 연합'에 미적(01.9.20. 한국 8면 '종합' ㅈ 기자 제목, '들'은 중복되는 말이다.)

자신감을 느낀 일본은 --- (01.12.10. 중앙 5면 '종합' ㅈ 기자 제목: 2004년 쌀 개방... 연착륙 방안 진단/수입쌀 최고관세 물려도/국산이 20%나 비싸, '감'을 빼거나 '자신감이 생긴' 정도로 고칠 말이다.)

---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01.12.15. 제주 1면 서울=본사 ㅈ 기자 제목: 본사 교열부 이장미 기자/2001 한국어문상 수상,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면 족하다.)

--- 조금이라도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바란다. (02.3.5. 제민 6면 '오피니언'의 '날줄 씨줄' ㄱ 상무이사 제목: 김근태, 당신조차..., '좋은'은 불필요한 말이다.)

8) 군더더기 말 남용 : '-가다, 대(對)한(해), -되다, -(되/하)고 있다, -되다, -상(上)에서(을), -에도 불구하고, -에 있어(서)의, -으로 인(因)해, -으로 하여(한), 인(因)함으로써, 있음으로 해서, 차원에서(의), -하(下)에, -화(化)되다' 처럼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 아버지 됩니다.”(99.11.3.18:40. 제주 MBC R '제주는 지금'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를 주제로 전화 참여한 학부모의 말, '아버지입니다'면 족하다.)

--- 지방의 군소 시·군들이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00.5.10. 문화 ㄱ 기자 제목:지방市·郡 '주민數 늘리기' 안간힘)

--- 이미지와는 달리 집안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지독한 살림꾼'이다.(00.7.1. 동아 A24면 ㄴ 기자)

---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경과로 환불받지 못했다.(01.6.23. 제주 22면 ㄱ 기자 제목:보험료 면제사유 몰라/부담하는 사례 늘어)

--- 주최측 사정으로 인해 심훈으로 바뀌었다.(01.9.18. 동아 A10면 '문화' ㄹ 기자 제목:1901년생 文人 6명/문단업적을 기리며...)

9) 접속어(연결어미) 오·남용 : 접속 부사를 남용하거나 잘못 쓰면 글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장의 짜임새가 느슨해진다. 조사나 어미를 앞뒤 상황에 맞게 쓰는 일도 중요하다.

김씨는 --- 육군초병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99.7.20. 한국 ㄱ 기자 제목:“어린 두아들이 무손좌...”,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독하다.' 또는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가 아니라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이라야 한다.)

“내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마는 한 의지의 장애인을 소개합니다.”(01.4.19. KI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전환 접속에 '-마는'을 습관처럼 쓰는 일은 하루바삐 고쳐야 한다.)

현행 축산법에는 타조가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별도의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데도 공주시가 금강수질과 경관을 고려했다면 허가

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01.7.16. 동아 A27면 '전국종합' 공주=○ 기자 제목:임야→목장→택지→전원주택지/금강변 야산 형질변경 특혜 의혹. 법적으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오염의 위험성이 크니까, 수질과 경관을 고려하여 농장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인 듯하다. 따라서 '없는데도'는 '없지만', '없으나,' 정도로 고칠 말이다.)

10) 뒷말(뒷가지)의 부당한 생략 : 조사나 연결어미는 물론이고 뒷말을 부당하게 생략하여 어근(어간)만 쓰는 일이 많다. 특히 명사형의 한자어로 끝내는 문장(특히 제목)은 일어투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지수 · 의학정보등 다채/왜곡된 정보여부 살펴봐야(00.12.5. 제민 ㄱ 기자 제목:접속! 안방주치의 건강사이트 부제, '다채(多彩)'는 명사가 아니고 '다채하다'의 어근이다. '다채롭다, 다채로이'처럼 쓰인다.) 수승일 썩썩(01.11.3. 동아 A26면 '사회' ○ 기자 제목, '썩썩하다(=날씨가 으스스하게 차다.)'를 '썩썩'로 줄일 수 없다. '썩썩'은, 짧은 다리로 가볍게 기어가는 모양, 마음이 들떠서 소다니는 모양, 머리를 되게 좌우로 흔드는 모양, 물이 재게 끓거나 온돌방이 끓듯이 딱끈딱끈한 모양, 뱃속이 조금씩 쓰리면서 아픈 모양 등을 이르는 말이다.)

美금리 10번째 인하/증시 '무덤덤' (01.11.8. 한국 15면 '증권 Hi/Biz' ㄱ 기자, '무덤덤'은 '무덤덤하다(=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이 예사스럽다.)'의 어근이다.)

11) 사동 · 피동형의 오 · 남용 : 우리말도 물론 피동 · 사동이 다 쓰이나 근간은 능동형이다. 굳이 피동으로 쓸 필요가 없는데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가가 하락되다' 같은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일은 고쳐야 한다. 특히 낱말 자체에 '시키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타동사형의 말이고 주어 행위의 주체인 데도, '-시키다' 꼴을 쓰는 습관은 고쳐야 한다.

"교사는 수업을 중단시킵니다."(99.10.21. K2TV '추적 60분'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보도 기자(남), 수업을 (중단)하는 주체가 교사이다.)

--- 송악산 이중분화구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00.8.2. 제주 ㄱ 기자 제목:조사팀 보고서 발표/“학술적 중요성은 있다”, ‘모아지고 있다’는 ‘모이고 있다’면 족하다.)

--- 명지대 사회교육원은 2001학년도부터 이 학과를 폐지시켰다.(01.2.3. 문화 여성=ㅇ 기자, 제목:고용불안 ‘추락하는 도우미’, 폐지한 주체가 명지대이다.)

12) 추상적인 문장(표현) : 사실을 객관적·직설적으로 전해야 하는 언론 매체 문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또 ‘것’은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우며 투박하고 상투적인 말이니, 되도록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는 ‘추진하여야 한다’가 바람직하다.

“--- 야채 위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00.5.3. K2TV ‘병원 24시’ 글·구성 ㄱ 작가 해설 ㄱ 성우)

심사 후보작은 문예지에 실렸던 단편 가운데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한 ‘단행본 장편’이나 ‘단행본 작품집’을 대상(對象)으로 삼음으로써 문학 소비자인 독자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00.6.5. 조선 社告 제목:東仁문학상 달라집니다, 부응하겠다는 ‘독자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호하다.)

시민단체들은 또 채택이 끝나면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채택 근거를 따지겠다며 교육위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모임측의 채택률 목표(10%) 달성 여부가 판정 기준이 될 전망이다.(01.7.19. 동아 A2면 ‘종합’ 도쿄=스 특파원 제목:日 왜곡교과서 保-革대결, 앞 문장을 읽어봐도 누가 무엇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인지 알기 어렵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오래 뜸을 들여오던 개각을 한다고 하는데도 민심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한 모양이다. --- 내각의 성격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나 기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 냉소적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02.1.29. 동아 A2면 ‘종합’의 ‘사실’ 제목:‘게이트 차단용’ 개각은 안된다. ‘대체로 시큰둥한 모양’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이어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단정은, 연결을 어색하게 할 뿐 아니라, 단정의 주체가 모호하고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말이다.)

13) 어법에 맞지 않거나 어색한 말을 쓴 문장 : ‘명사+하다’를 굳이 ‘명사+을/를+하다’로 쓴다거나(예:저 가게는 옷을 싸게 판매를 한다.), 자·타 동사를 구분하지 않아 타동사를 자동사처럼 쓰거나(예:그들은 회사에 요구하고 주장했다.), 복수 표현을 남용한다거나(예:식탁들의 요리들을 먹어 본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한다¹⁵⁾), 존경을 표하는 어미를 연달아 쓰거나(예:아버지는 철수를 보시고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¹⁶⁾), 부적절한 낱말을 사용하는 일(예:밀렵과 환경 오염이 어우러져 동물이 줄어든다. 외환 위기에 때맞춰 회사는 대대적인 감원을 강행했다.¹⁷⁾ 그리고 활용 오류(예:그는 예의가 바라(→발라[正]) 남에게 호감을 준다.) 등은 문장을 어색하게 만든다. 덧붙여, 한자로 적으면 훨씬 좋은 경우도 한글로만 표기하여 독자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차라리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특정 글자만 한자로 적는 일 또한 매끄럽지 못한 문장을 만드는 원인이다.

“그의 간드러지는 목소리는 ---”(98.12.31.19:30 MBC TV ‘축음기에서 MTV까지’ 해설 ○ 가수(남), ‘간드러지다’는 형용사이므로 ‘간드러진’이라야 옳다.)

하지만 발성과 발음에 지닌 문제점이, 시비로워야 할 강지민 역할과 곳곳에서 충돌하며 질은 아쉬움을 남긴다.(99.1.4. 조선 19면 ○ 기자, 영화(‘닥터 K’) 평인데, 주인공인 초 배우(남)의 발음을 지적한 부분이다. ‘지닌’은 타동사이니 ‘발음에’는 ‘발음이’ 또는 ‘발음에 나타난 문제점이.’라야 매끄럽고, ‘역할’은 일어식 한자어이다. 무엇보다도, ‘시비(하다)’는 ‘시비롭다’로 쓸 수 없는 말이다.)

한쪽은 처제에게 저지른 성폭력에 대한 응징으로, 한쪽은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아내의 탐욕에 의해 각각 남편을 살해했다.(99.1.22. 문화 ㄱ 기자, ‘한쪽’ 곧 살해 주체는 아내이니 ‘처제’는 ‘(여)동생’이라야 하고, ‘아내의 탐욕에 의해 각각’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각각’이라야 앞 구절과 호응된다. 앞 말에 따라 ‘남편이 살해됐다’ 또는 ‘남편을 살해했다’로 뒷말이 달라진다.)

15) 우리말은 단·복수를 엄격히 가리지 않는다.

16) 한 문장에서는 가장 나중에 쓰인 존경을 나타내는 어미 하나가 전체를 포괄한다.

17) ‘어우러지다’는 여럿이 조화된 상황에 쓰이는 말이고, 때에 알맞게 한다는 ‘때 맞추다’는 감원 같은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값싼 임금이라는 매력이 사라지자 외국 기업들이 몰밀듯이 빠져나갔던 것이다.”(99.3.10. K1TV ‘KBS 네트워크 기획’〈‘마산수출자유지역’〉해설 성우(남), ‘몰밀듯이’는 물결이 밀려오듯이 거세찬 힘으로 연달아 많이 몰려오는 모양을 말하니, ‘몰밀듯이 빠져나갔다’는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용의자 스미스가 추적당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이러스 스트링 안에서 제작자를 「퀴보」라고 밝힌 점이다.(99.4.5. 경향 ㄱ 기자 제목: ‘멜리사 바이러스/ 만화영화 ‘심슨’ 모방’ 기사, 용의자에게는 ‘기여’가 아니니, ‘스미스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정도로 고쳐야 한다.)

“생활꿀비판 30대女/---”(99.7.20. 한국 ㄱ 기자 제목: “어린 두아들이 무슨 죄...” 부제, ‘꿀’만 한자로 써야 할 이유가 없다. 여백도 있는데 굳이 ‘꿀女’라 하는 식의 관행은 고칠 일이다.)

칠순을 넘기면서는 작품활동을 거의 해오지 않았다.(00.5.13. 중앙 〇 기자 제목: 수필가 피천득 선생 九旬寡, ‘해 왔다’와 달리 ‘해오지 않았다’는 ‘하지 않았다’가 매끄럽다.)

스타로서의 자의식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 (00.6.5. 조선 ㄴ 기자, ‘미션 임파서블2’ 홍보차 내한한 톰 크루즈 인터뷰 기사, ‘자의식이 넘치는 것’은 ‘자의식 과잉’을 뜻하니, ‘자의식’은 ‘자부심’이 적확하다.)

한글 오염 앞장서는 방송가 최동욱 (00.7월호 ‘샘이 깊은 물’ 기사 제목, 아마도 한글 오염 ‘방지’에 앞장 선다는 말일 텐데 정반대의 뜻이 되어 버렸다. ‘방송가’는 ‘放送街’인지 ‘放送人’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후자라면 ‘방송인’이 좋다.)

이씨는 --- 1980년대 대학가에 마르크스주의 원전 학습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00.7.21. 한겨레 ‘인문학 데이트/열린 지성과의 대화’ 편집자, ‘張本(ちようほん)’은 나쁜 일을 일으키는 근본을 말하니, 좋은 일에는 쓰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 정도로 고칠 말이다. ‘김현은 당시 계간지 ‘문학과 지성’의 대표적 기획이기도 했던 ‘재수록’ 아이디어를 낸 장본인.’(01.2.28. 문화 ㄴ 기자 제목: ‘文知시대’ 꽃피운 한글세대 ‘대부’)도 같은 예이다.)

--- 남북한의 녹화방식이 틀려 정작 내용을 함께 볼 수 없었다.(00.12.2. 동아 ㄴ 기자 제목: “앗, 선물 잘못 가져왔네”, 녹화 방식이 ‘다들’ 뿐이다.)

쌀, 팔고 싶어도 팔데가 없다(01.1.29. 전북 ㄱ 기자 제목, 쌀 소비가 줄어 쌀을 판매할 데가 없다는 기사이다. 그러나, 돈을 주고 남의 곡식을 사는 것이 ‘팔다’이니, 쌀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곳이 없다는 말이 되어 버렸다.)

--- 남자 상사가 “거, 카드 좀 봅시다. 누가 보냈거야?” 하며 아는 체 한다.(01.4.27. 조선 36면 ㅎ 기자, 남의 일에 대해 관계하는 태도나 남을 보고

인사하는 듯한 표정은 '알은체한다'고 한다.)

“행복하십시오!”(01.5.13. K1TV ‘풍물 기행 세계를 가다’ ㄹ 공동 진행자 (아나운서, 남), ‘-시오!’ 라야 하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행복하다’는 형용사 이니 청유형이나 명령형을 쓸 수 없다.)

“차량 제동 거리 근 50여미터”(01.7.22.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 자막, 50미터를 넘었으면 ‘근’을, 못 미쳤으면 ‘여’를 빼야 한다.)

외국 기자들이 ‘독토르 압둘라(압둘라 박사)’라고 부르는 그의 노력 덕분에 북부동맹은 수도 카불을 비롯해 전국의 90%를 탈레반에게 빼앗겼으나 국제무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01.10.4. 동아 A8면 ‘국제’ 호자바우딘(아프가니스탄)=ㄱ 특파원 제목:“美 軍과 공조… 탈레반 봉기 시간문제”, 그의 노력 때문에 북부 동맹을 탈레반에게 빼앗긴 게 아니고 그의 노력 덕분에 북부 동맹이 합법정부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이니, ‘덕분’은 ‘때문’이라야 한다. ‘북부동맹은 --- 탈레반에게 빼앗겼으나(.) 외국 기자들이 ‘독토르 압둘라(압둘라 박사)’라고 부르는 그의 노력 덕분에 국제무대에서는 --- 인정받고 있다.’ 정도로 고칠 문장이다.)

오늘 월드컵 초추첨 … ‘특수 기대’ 초미 관심사(01.12.1. 제민 ㄱ 기자 부제 제목:“중국팀 경기에 달렸다”, ‘초미(焦眉)’는 매우 위급함을 비유하는 말이니, ‘최대(의)’로 고쳐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 이후 음주 단속에 적발된 37만2000여명 가운데 ---//그러나 전산관리가 돼 있지 않은 2000년 이전의 구제 대상자들은 --- (02.2.3. 조선 17면 ‘사회’ ㄴ 기자 제목:2000년 이후 단속된 사람은 자동구제/전산처리 안된 경우엔 경찰에 신청을, ‘이전’은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해서 그 전’을 뜻하는 말인데,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가 중복되어 2000년에 단속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1999년 이전의 일 것이다.)

너무 찰지고 투명해 마치 유리 같았다고 한다.(02.3.12. 조선 42면 ‘느낌!’의 ‘음식남녀’ ㄹ 기자 제목:사라져가는/사찰음식/‘비법’ 130가지, ‘찰지다’는 ‘차지다(=끈기가 많다.)’의 잘못이다.)

살아나는 정성훈/뒤늦게 주전 넘봐(02.3.21. 중앙 43면 ‘경기 종합’ 광주=ㄱ 기자, 수원=ㄱ 기자 제목, ‘넘봐’는 ‘노려’ 정도로 고쳐 쓸 말이다.)

--- 미안함과 죄책감이 깊게 배어 있었다.(02.3.21. 문화 26면 ‘사회II’ 인천 = ㄱ 기자, ‘배어’는 ‘배’라야 한다.)

그을린 쥐를 세자의 숙소에 걸어놓았다는 ‘작서(灼鼠)의 변(變)’을 --- (02.3.23. 동아 C6면 ‘대중출판’ ㄱ 기자 제목:거짓의 세계사/뒤집어 보기,

‘그을다’는 햇볕이나 연기 등에 오랫동안 쬐어 빛이 검게 된다는 말이고, ‘그스르다’는 불에 쬐어 거죽만 조금 타서 검게 한다는 말이다. ‘그슬리다’는 그스르도록 하거나 그스름을 당한다는 말이니, ‘그을린 쥐’는 ‘그슬린 쥐’가 옳다. ‘그슬린 돼지가 달아 맨 돼지 타령한다.’는 속담을 상기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금메달을 딴 과정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피겨 스케이터인 ---
(02.5.4. 한국 18면 ‘사회’ 워싱턴=○ 특파원)

14)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 : 이를테면 경제력이 있는 50대의 부모와 같이 사는 아들 부부가 부모님을, 일곱살배기가 60대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간다)’는 식의 부적절한 말이 가끔 보인다.

장 부대변인은 ---“신 총장이 강조한 검찰중립회는 결국 무소불위의 ‘전제검찰’ 만들기가 아닌가”라고 물고늘어졌다.(01.5.30. 세계 5면 스키 기사 제목:“愼총장 발언은/對野 선전포고”, 한나라당의 논평을 보도한 기사인데, ‘물고 늘어졌다’는 중립적이지 못한 표현이다. ‘아닌가’에는 부호(?, !, .)가 있어야 한다.)

“--- 강도들이 폐쇄 회로 덕분에 붙잡혔습니다.”(01.7.11.09:40 K1TV 뉴스 비 아나운서(여), ‘폐쇄 회로 때문에’ 또는 ‘강도들을 폐쇄 회로 덕분에 붙잡았습니다.’라야 한다.)

당신은 요동치는 세계 스포츠계의 한 시기를 너무 중요하게 살았다.(01.7.19. 한겨레 8면 ‘여론’의 ‘데스크 칼럼’ ㄱ 기자 제목:사마란치 노욕과 김운용, ‘너무(=정도에 지나치게, 분에 넘게)’라 했지만 반어적인 뜻도 아니다.)

취임 후 (이 검찰총장은) --- 점심은 매일 구내식당에서 때운다.(02.3.20. 동아 A30면 ‘사회’ ○ 기자 제목: ‘수도승’ 같은 검찰총장, 점심은 으레 청사 밖의 음식점에서 먹어야 하는지, 구내 식당에서 먹으면 때우는 것인지의 문이다. 이런 표현은 고쳐야 할 관행이요, 편견이다.)

(유학생들이) 미국 들어가기는 앞으로도 더욱 어렵게 --- (02.4.20.08:50 K2TV 뉴스 워싱턴 특파원(남), 유학생이니 미국 국적이 아니다. ‘미국(으로) (나가)기는’이라야 한다. 미국에서 보도하니, 굳이 말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미국(으로) 오기는’ 정도도 무방하겠다.)

15) **시제의 혼란** : 한 문장에서는 맨 마지막 용언이 다른 용언의 시제까지 포괄한다든지, 출신인사에게는 ‘-가(이) 있다’고 해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군기무사령부는 ---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기무사는 --- 오씨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검토했다.(01.6.20. 동아 A2면 ○ 기자 제목:北상선 교신유출조사 지연/증인출석요구서 발송 못해, ‘검토했다’는 ‘검토했었다’라야 매끄럽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 산지·마라도 등대를 무료로 제공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산지 등대의 경우 1인 숙박 기준으로 세탁비·관리비 명목으로 하루 5000원씩 이용료를 받았고, 마라도 등대는 민박업소를 고려해 일반인 숙박은 금지됐다.(01.11.5. 제민 22면 ‘사회’ 무기명 제목:산지·마라도 등대/숙박시설 ‘공짜’, ‘이용료를 받았고, --- 일반인 숙박은 금지됐었다.’고 해야 뜻이 통한다.)

16) **너무 긴 문장** : 언론 매체의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군더더기가 많으면 기사의 핵심은 가려진 채 현학적인 문장이 되기 쉽다.

제주시내 오현단 맞은편에 있는 방호벽 곳곳이 균열돼 사고 우려가 높아 이 지역 주민들이 서둘러 정비해줄 것을 제주시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01.9.11. 제주 23면 ‘사회’ ㄱ 기자 사진 설명, 문장이 길어 매끄럽지 못하고, 얼핏 보면 주민들더러 정비하라는 뜻으로 전달되기 쉽다. 다 읽고 나서야 주민들이 당국에 정비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려가 높아 서둘러 정비해줄 것을 이 지역 주민들이 제주시 당국에’로 고쳐도 좋겠지만, ‘우려가 높다. 이 지역 주민들은’처럼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

17) **속담, 경구, 관용어 등의 오용** : 속담이나 관용어 등을 틀리게 쓰면 말맛을 떨어뜨린다. ‘옥에 티/옥의 티’처럼 같은 낱 같은 신문에서 두 가지를 혼용하는 일도 있다.

㉞ 게 눈 감추듯: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어 버리는 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게 눈 감추듯 사라져 버렸습니다.”(02.1.17. K2TV 극 ‘명성황후’, 병사들이 도망갔다고 대원군의 증복이 하는 말)

㉠ 따 놓은 당상: ‘받아 놓은 밥상’ 과 같은 말로, ‘떼어놓은(떼어 놓) 당상(堂上)’ 이라야 맞다.

---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01.1.4. 문화 ‘레저’)

㉡ 쇠귀에 경 읽기: ‘쇠코에 경 읽기’ 와 같은 말로, ‘쇠-/소-’가 복수 표준어(1988.1. 이후)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이 없습니다.”(01.9.11.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 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 “--- 배 밭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란 말도 있잖아!”(99.10.31. MBC TV 극 ‘전원 일기’ 극본 〇 작가, 극 중 복길이 할머니의 말, ‘오얏나무(→자두나무) 밑(李下)’ 이 ‘배 밭(梨田)’ 으로 바뀌었다.)

㉣ 옥에 티: ‘본바탕은 썩 좋는데 아깝게도 흠이 있다.’ 는 뜻인 말이다.

--- 양이 적은 것이 ‘옥에 티’ //당시 대학가 세부 묘사에서 ‘옥의 티’ 가 간간이 눈에 띄고 ---//주제의식의 과잉도 ‘옥의 티’ 다.(01.6.2. 동아 A24면 ‘메트로’ 제목:졸깃한 면발... 알싸한 국물.../메밀국수 더위가 ‘짜~악//같은 날 같은 신문 A14면 ‘주말 TV영화’ ㄱ 기자 제목:사랑하는 이가 21년후 사람이라니...//01.8.18. 중앙 39면 ‘대중출판’ 〇 기자 제목:“홍등가의 불빛은 별을 닮았다”)

㉤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허기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지만 ---”(00.5.13. MBC TV 극 ‘전원 일기’ 극본 〇 작가, 극 중 파출소장의 말, ‘평양감사’ 라는 직제는 없었다.)

18) 제목과 본문이 서로 맞지 않는 기사 : 제목과 기사 본문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출처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전통 깃든 영화 인정받아 보람”(00.4.19. 동아 ㄱ 기자 제목: ‘춘향뎐’ 칸 영화제 본선 첫 진출 소제목: 임권택 감독 일문일답, 따옴표를 했으나 실제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없다. ‘깃든’ 은 ‘깃들인’ 이 바람직하다¹⁸⁾.)

책임보험 年20만원선 올라(00.6.3. 동아 기획취재팀 제목,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료가 누구나 年20만원 정도 오른다는 뜻으로 읽힌다. 중

18) ‘깃든’ 과 ‘깃들인’ 의 차이점은 주 3)(2002a) 13~14쪽에서 검토하였다.

합 보험에 가입한 80%의 운전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책임 보험에만 가입한 20%의 운전자는 연간 15만~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책임보험만 들면(가입시) 年20만원까지(年20만원선) 올라'로 고칠 말이다.)

"수사내용 할말 없다"//당시 특수2부 주임검사="수사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17일 통화)(01.9.18. 동아 A3면 '종합' 0 기자 제목:국정원간부 거역수수 혐의/수사 중단 누가 시켰나, '관련자 해명'의 중간 제목과 본문. '할 말 없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의미 차이가 크다.)

19) 기자만 아는 기사(문장), 주의 깊지 못한 기사(문장) : 독자가 정독해도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기사가 적잖은데, 기사는 항상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 눈치로 뜻을 헤아리게 되는, 꼼꼼하지 못한 글은 기자의 부주의 탓이 크다고 본다.

사진 ①은 ---//사진 ③은 부산교도소 수감 당시 사진이다. 근육형의 몸집에 어깨 아래로 문신 강렬하게 노출돼 있다.(99.7.19. 조선 ㅈ 기자 제목:신창원 변화무쌍 10년/엇된 얼굴서 다부지게... 소제목:89년 짧은머리 오똑한 코/수감당시 근육질 몸매/체포뎀 앞머리 길은 모습, 신창원의 사진 5장 밑에 있는 설명인데, 우선 사진에 번호가 없고 따라서 번호에 대한 설명도 없다. 제시한 '사진 ③'은 몸집이나 어깨 아래를 볼 수 없는 얼굴 사진이다. 소제목의 '길은'은 '긴(또는 기른)'이 옳다.)

--- 동승한 노모를 숨지게 한 충남 모대학 남모(41)교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충남 대천대 전산과 교수 남기영(南基榮·서울대 졸업·연대 대학원 졸)씨가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99.9.23. 한국 무기명 제목:車급브레이크 老母 사망/대학교수 과실치사 영장, 같은 기사인데 앞에서는 '모대학 남모(41)교수'라고 했다가 다음다음 단락에서는 이름, 근무처, 학력까지 밝혔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독자의 알 권리'를 떠나, 치밀하지 못한 탓이다.)

여성범죄수사관실은 10일 위자료를 빼돌린 의사와 세입자를 성폭행한 집주인,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전 애인을 스토킹한 개그맨 등 4명을 적발, 기소했다고 밝혔다.(00.5.11. 조선 31면 0 기자 제목:파렴치 남성/女수사관에/줄줄이 덜미, 기자만 아는 기사라 할 만하다. 반점을 적절하게 찍지 않아 더 혼란하다. 별개 사건들을 묶었는데, 1). 의사와 세입자를 성폭행한 집 주인 2). 스토킹

킹한 개그맨'이 아니고, 1). 위자료 빼돌린 의사 2). 성폭행한 집 주인 3). 스토킹한 개그맨'을 기소했다는 말인 듯하다. 그렇다면 '의사와,'라야 한다. 그런데 세 사건에 왜 4명을 기소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딘가 두 명이 있을 텐데 '의사들' 따위로 밝히지 않았다. 아니면 같은 사건이 다른 데서도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적발, 기소했다고'는 '적발·기소했다고'가 적확하다.)

--- '틀물레짓'과 '몽니' 등은 --- 그의 충청도 사투리도 수사에 기여하는 재료.//YS를 '홍곡(鴻鵠·큰 기러기나 백조)'에 비유하며 몸을 낮췄다.(00.5.27. 동아 ○ 기자 제목:JP의 修辭 변천사, '틀물레짓(질)'이 사투리 인지는 불확실하나, '몽니'는 표준어이다. 큰 인물을 비유하는 말인 '홍곡(鴻鵠)'의 뜻은 '큰기러기와 고니'이다.)

--- 30년전 노동당이 우수한 공립학교를 역시 '엘리트 주의'를 이유로 폐지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공립학교 몰락, 사립학교 독점' 현상을 불렀다며 "현 교육파행의 원인은 노동당 정부 자신에게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여학생을 포함, 23명이 지원한 이번 옥스퍼드 의대의 경우 5명의 최종합격자 가운데 공립학교 출신이 2명, 3명은 소수인종으로 채워진 것으로 밝혀져 노동당 정부의 입장은 더욱 웅색해졌다.(00.6.6. 한국 ≡ 기자 제목:英정가 '계급전쟁' 논란 확산//옥스퍼드낙방 공립출신/하버드大 합격으로 촉발//여'사립 특권의식 없애야'/야·여론은 "공교육 부재탓", 공립학교 출신의 우수 학생이 옥스퍼드 대학에 떨어진 것은, 엘리트주의를 문제 삼아 우수한 공립 학교를 폐지한 노동당의 정책 실패라는 것이다. 그런데 뒷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과 연결되지 않는다. 옥스퍼드 의대의 입학 정원이 5명은 아닐 테니 5명의 최종합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5명 중 공립 출신 2명을 뺀 3명은 소수 인종인데 이 3명이 모두 사립 출신이란 말인지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 3/5을 두고 '독점'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왜 현재의 공립 교육 체제를 파행적이라고 비난하는지 기사 전문을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에 흉기 휘두르다 총 맞고 체포(01.1.6. 35면 조선 제목, 총을 쓴 경찰관에게 범인이 체포된 것인데, 총 맞은 경찰이 총 쓴 범인을 체포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총 맞고 잡혀'¹⁹⁾ 정도로 고칠 말이다²⁰⁾.)

閣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의·의결/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확대

19) Cf. 정재도, "우리말글 다듬기(9)", 「신문과 방송」 제364호, 한국언론재단, 2001. 67쪽.

20) 구태여 따지자면, 범인이 총알에 맞았지 총에 맞은 것이 아니며, 휴대하는 총도 가스총, 고무총, 권총 등이 있고 총알도 공포탄, 신호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실탄 맞고 잡혀'라야 더 적확하겠지만, 관용구라 하겠다.

(01.6.6. 제주 6면 <연합> 제목, 카드 연간 소득 공제 한도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기사인데, 독자는 현행 한도 300만 원에 이번에 확대한 500만 원을 더해 함께 800만 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카드 소득공제 500만원으로 확대'가 어렵다면 차라리 '카드 소득공제 200만원 추가'라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쯤 AK-47 소총, 엽총, 사냥총, 권총 등 다수의 총기와 탄약을 --- (01.2.7. 조선 13면 워싱턴=스 기자 제목:美 직장 銃器난사, '엽총'과 '사냥총'은 같은 말이다.)

이총재 "보석같은 역할" 김용갑 추켜세워(01.6.21. 문화 5면 '정치'의 '정가클릭' 비 기자 제목, 누가 누구를 치켜세웠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총재(는) "보석같은 역할"(을 한다고) 김용갑(이) 추켜세워'인지 '이총재(가 김용갑은) "보석같은 역할"(을 한다고) 김용갑(을) 추켜세워'인지 모호하다. 눈썹을 추켜 세운 것은 아녜네니 '치켜세워'라야 한다. '역할'은 '소임, 구실' 정도로 고칠 말이다. '박사장은 또 --- (정몽헌 회장을) 추켜세웠다.' (00.6.6. 한국 '라운드' 오 기자 제목:현대전자 박종섭사장 "오너결단 긍정적효과")처럼, '치켜세우다'를 '추켜 세우다'로 쓰는 일이 많다.)

--- 이 여성(ㄱ)은 ---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여성의 난자를 제공받아 수정란을 착상, 임신에 들어가 지난달 순조롭게 아이(ㄴ)를 출산했다. 난자를 기증한 여성(ㄷ) 역시 수정란으로 착상한 아이(ㄹ)를 출산했으며 이 아이는 정자 기증자인 남동생(ㅁ)이 키우고 있다/결국 자신(ㅂ)의 남동생(ㅅ)과 제3의 여성(ㅇ)이 각각 생물학적인 부모이긴 하나 출산 당사자(ㅈ)는 여동생(ㅊ)이 된 셈.(01.6.21. 문화 8면 '세상에 이런일도...' ㄱ 기자 제목:佛최고령 출산 62살 여성/동생 정자로 인공수정 밝혀, (ㄱ)~(ㅊ)는 필자, 아마도 ㄱ=ㅂ, ㄷ=ㅇ, ㅁ=ㅅ일 터이나, ㅁ, ㅂ, ㅇ, ㅈ, ㅊ이 누구인지 또 어떤 관계인지 알기 어렵다. '난자를 기증한 여성(ㄷ)' 역시 미국인 남동생의 정자를 받았다 것인지, '자신(ㅂ)의 남동생(ㅅ)과 제3의 여성(ㅇ)'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ㄱ의 남동생(ㅁ)이 ㄷ에게 정자를 기증했는데, ㄷ의 수정란 2개를 ㄱ과 ㄷ에게 착상했다는 말인 듯하다. 아마도 ㄱ은 자신의 남동생인 ㅁ의 정자와 ㄷ(=ㅇ)의 난자를 이용하여 ㅊ(딸)을 낳았고, 그 전에 ㄷ은 ㅁ의 정자로 ㄹ(아들 또는 딸)을 낳았다는 말인 듯하다. ㄴ과 ㄹ은 모두 ㄷ과 ㅁ가 부모인 아이들이니 유전적으로 친남매이다. 모호한 표현인 '정자 기증자인 남동생(ㅁ)'은 ㄷ의 남동생으로 읽히니 '정자 기증자인, 프랑스 여성의 남동생'으로, '제3의 여성(ㅇ)'은 '난자 기증 여성'으로, '출산 당사자(ㅈ)'는 산모(産母)이나 문맥으로 보아 출산아를 말하니 '출산아'로, '여

동생(ㄷ)이 된 셈'은 잘 이해되지 않으니 '난자 기증여성이 낳은 아이의 여동생이 된 셈'으로 고치면 다소 확실해진다. 설명 '출산 당사자(ㄷ)를 ㄱ이나 ㄴ이라 해도 '여동생(ㄷ)'은 잘못이다.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라는 뜻으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번역으로 추정되는 '생물학적 부모'는 꽤 넓은 개념이라 정확한 말이라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 책은 "윌러드"란 별명이 붙여진 클린턴의 페니스의 명상으로 끝을 맺는다.(01.7.21. 한겨레 말리부/AP 연합 무기명 제목: '원초적 본능' 작가 에스테르해즈/클린턴 성추문 소설책 펴내, 1). 클린턴의 별명이 윌러드인지, 2). 클린턴의 페니스 별명이 윌러드인지, 3). 페니스의 명상을 클린턴이 했는지, 4). 클린턴의 페니스에 대해 작가가 명상했는지, 5). (비유적으로) 클린턴의 페니스가 명상했는지 종잡기 어렵다.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거리, 문장 부호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3)이라면 '별명이 붙여진 클린턴의, 페니스에 대한 (작가의) 명상으로', 1), 5)라면 '별명이 붙여진 클린턴의, '페니스의 명상'으로', 2), 4)라면 '별명이 붙여진 '클린턴의 페니스'에 대한 (작가의) 명상으로' 정도로 고칠 문장이다.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직역 때문에 내용 파악이 어려운 점은 고쳐야 할 병통이다.)

--- 외교부 추규호(맨 오른쪽) 아태국장과 조환복(가운데) 국제경제국장 등이 7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01.10.8. 한국 3면 '종합' ㅂ 기자 사진 설명, 제목: "정부 입장은...", 관련 기사 전체를 읽어봐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정부 방침(처지, 관점)을 설명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조씨는 "제주도인 본래의 비교적 특이한 형질을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으며 한국내에 분포가 적은 왼쪽 이마 발달형이 많은 점은 제주인의 장래에 고무적인 일이다."고 평가했다.(01.11.4. 제민 ㄱ 기자, '한·중·일 국제미술해부학 심포지엄' 관련 기사, 기사 전문을 읽어봐도 왼쪽 이마 발달형이 많으면 왜 고무적인지 알 수 없다. '심포지엄'은 '심포지엄(symposium)'이 맞다.)

다. 문장의 호응과 연결

적절한 접속어를 쓰지 않으면 앞뒤 문장이 호응되지 않아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어미나 조사도 마찬가지이다. 수식구가 너무 길거나 장문만 이어지면 문장의 호흡이 길어져서 글의 초점이 흐려진다. 너무 많은 문장을 한 문단에 묶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본업인 '공무'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총리실에서 23명의 총리를 수행하며 일처리 하나만큼은 똑 부러진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99.11.13. 중앙 ㅎ 기자,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대 명예초청교수된 조병세 씨 소개 기사, 앞뒤 문장이 밀접한 인과 관계가 없으니, '때문'을 빼고 '--- 소리를 들었다.'면 족하다.)

무난한 진행과 매끈한 말솜씨를 사회자 요건으로 생각하던 방송가 풍토에서 그의 발탁은 관심거리였다/그러나 방송 100일을 넘긴 '정운영의 100분 토론'은 --- 자리잡았다는 평이다.(00.2.10. 조선 ㄱ 기자, MBC TV '100분 토론' 진행 정운영 교수 인터뷰 기사, '그의 발탁은 관심거리였다'와 '그러나 --- 자리잡았다'는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서 이음새가 어색하다. '그의 발탁은 걱정스러웠다(부정적이었다)'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데--- 자리잡았다'가 매끄럽다.)

이번 주먹구구식 조사발표로 국방부는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손상을 우려, 주한미군에 면죄부를 주기위해 '총대를 메는 데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면 현지주민의 감정만 자극해 오히려 한·미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00.6.2. 문화 '취재수첩' ㅈ 기자 제목:아픔만 키운 '매향리 조사',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단정'과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직결되지 않는다. '---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정도로 고쳐야 할 말이다.)

"서울 홍제동 화재도 방화가 원인이었습니다마는 오늘 화재도 방화가 원인이었습니다."(01.3.7. K1TV 뉴스9 ㄱ 공동 앵커(남), '-마는'을 '그러나'로 대체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홍제동 화재와 오늘 화재는 역접으로 연결될 내용이 아니다. '원인이었고', '원인이었으며', '원인이었는데,' 등으로 고칠 말이다.)

2. 문장 부호

문장 부호 오·남용과 부당한 생략은 글의 의미를 해치고 글을 난삽하게 만들어 쓴 사람 자신만 아는 말이 된다. 부적절한 곳에 부호를 찍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부호를 너무 아껴서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을 방해하는 일이 많다. 특히 반점에 인색하여 이를 생략하는 바람에 혼

란을 주는 일이 자주 있다.

문장이 끝날 때 쓰는 온점이나, 대등한 단위나 밀접한 관계를 열거할 때 쓴 가운데점,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큰따옴표 사용에 잘못이 많다. 줄임표로 끝나는 문장도 온점을 찍어 마쳐야 하는데 빠뜨리는 일이 잦다. 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온점을 쓰지 않게 정하고 있으니, 기사 제목에도 준용된다고 본다. 따옴표를 사용한 인용문에 온점을 찍어야 하는지는 뚜렷한 규정이 없으나, 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으니 당연히 찍어야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 부록 '문장 부호'의 예문(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에는 온점을 찍었다.

호부(好否)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말글의 준범이 되어야 할 신문은 문장 부호 사용법을 엄격히 지켜야 바람직하다. 속보성이라는 언론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장 부호를 소홀히 하여 오는 혼란은, 상당 부분 평소의 훈련과 관심이 부족한 데서 온 것이라고 본다.

한 대법관은 「양 실장은 합리적이고 예의가 바라 위-아래로부터 모두 신망이 두터워 --- (99.2.2. 조선 26면 ㄱ 기자, '위-아래'는 한 단어로 굳은 말로 '위아래'가 사전의 표제어이다. '나일론-실, 염화-칼륨' 처럼, 붙임표(-)는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될 때 쓴다. 따라서 '아들-딸' (00.5.13. 동아)은, '아들딸'이 옳고 또 사전의 표제어이다. 낫표(「」)는 세로쓰기에 쓰는 부호이니 작은따옴표(" ")를 해야 좋다. 적확하게는, 겹낫표(『』)가 아닌 큰따옴표(“ ”)를 해야 한다. (겹)낫표 사용은 과거의 세로쓰기에서 굳은 습관이 아닌가 한다. '--- 남기영(南基瑩·서울대 졸업·연대 대학원 졸)씨가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 (99.9.23. 한국 무기명 제목: 車급브레이크 老母 사망/대학교수 과실치사 영장) 처럼, 흔히 보이는 잘못이다.)

이후 그녀는 69년 세계 전역의 차이나타운에 성도일보를 현지제작해 판매하는 당시로선, 사상 최초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신문을 제작해 세계 신문업계를 놀라게 했다.(99.2.10. 조선 홍콩=홍 기자, 홍콩의 후생(호선·67·여) 회장 몰락 위기 보도 기사, '현지제작 판매해, 당시로선 사상 최초'로, 원문을 살린다면 '현지제작해 판매하는, 당시로선 사상 최초' 정도로 고쳐야 한다. 이대로라면, 당시에는 성도일보를 현지 제작해 판매했으나 그녀는 사상 최초

로 세계 네트워크를 가진 신문을 제작했다는 말이 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비판 인문학 위기극복 대안 못돼”(00.5.24. 중앙 15면 무기명 제목, ‘표현 인문학’ 책 소개 기사, 기사 본문을 다 읽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판과 인문학’이 아니니, ‘비판 인문학.’ 정도가 좋고 ‘비판인문학.’으로 붙여 쓰는 게 낫겠다.)

“뇌졸중 마비 손발 사용해야 풀린다”(00.6.5. 동아 무기명 제목, ‘뇌졸중으로 온 마비는 손발을 사용해야 풀린다’는 말이 아니다. ‘뇌졸중, 마비 손발 사용해야 풀린다’ 또는 ‘뇌졸중은 마비(된) 손발을 사용해야 풀린다’라야 혼동이 없다.)

김영민, 이진우 교수에 대한 재반론(00.7.17. 교수 184호 14면 무기명 제목, 기사 내용은 김영민 교수의 재반론이 아니고 정대현 교수의 재반론이다. ‘김영민·이진우 교수에 대한 재반론’이라야 적확하다.)

이들(필자 주:탑골공원의 공익근무요원들)은 “냄새가 나서요”라면서 목장갑을 끼고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다.(00.8.10. 문화 ‘김선미 기자 세상옆보기’ 제목:외로운 할아버지 유혹하는 손길..., 목장갑을 낀 사람들이 공익 근무 요원인지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인지 명확하지 않다. ‘목장갑을 끼고, 공원 벤치에서’ 일 것이다. ‘나서요’는 ‘나서요(!)’라야 적확하다.)

견학보고서를 쓸 때는 사실과 의견이나 감상이 구별되도록 한다.(00.8.15. 동아 7 기자 제목:엄마손 잡고 박물관 피서 떠나요, 기사의 의미는 ‘사실과, 의견이나 감상’일 것이나, ‘사실과 의견이나, 감상’으로도 읽힌다.)

--- 아버지에 관한 회고록 <꿈을 잡는 사람>을 다음주 출간한다./마거릿은 올해 81살로 50살 연하의 간호사를 세번째 부인으로 맞아 두문불출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생활을 --- (00.9.2. 한겨레 뉴욕/연합 무기명 제목: ‘셀린저 사생활 폭로’ 딸 회고록 나와, 문면대로라면 ‘올해 81살’이 마거릿인지 그 아버지인지 모호하니 ‘마거릿은,’으로 주어를 밝혀야 한다. ‘올해 81살로 --- 아버지의 사생활을,() 마거릿은 ---’도 좋겠다. 기사 뒷부분에 가서야 마거릿은 43살이라고 밝혔다.)

서부산업도 확·포장 ‘순조’(00.10.13. 제민 0 기자 제목, ‘확·포장’은擴張과 鋪裝을 이르니 가운뎃점을 쓸 수 없다. “순조”는 인용한 말이 아니니, 굳이 이 말을 두드러지게 하려면 ‘순조’가 좋다. ‘순조’는 ‘순조롭다, 순조로이’처럼 쓰이는 말이다. ‘순조’가 명사이니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명사형의 한자어로 문장을 끝내는 것은 일어투라 바람직하지 않다.)

관리사무실을 통하거나 단지 내 개보수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시공업체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00.10.30. 동아 ○ 기자 제목:‘뉘고 조이고 바꾸고... “아파트 끝까지 책임집니다”, 관리사무실 또는 개·보수 업체 이용 전에 시공업체에 문의부터 하라는 것인지, 관리사무실을 통하거나 미리 시공업체에 문의하거나 다 좋다는 말인지 모호하다. 전자라면 ‘이용하기 전에.’로, 후자라면 ‘관리사무실을 통하거나.’로 고칠 문장이다. ‘개보수’는 ‘개·보수’가, ‘단지 내’는 ‘단지내’가 적확하다.)

‘끔찍한 창조=폰수의 등식’(00.11.22. 대한교원 제758호 2면 ‘김정란 칼럼’ 제목:미래의 모차르트 중간 제목, ‘끔찍한 창조=폰수’가 아니다. 창조 적일수록 폰수 취급을 당하는 끔찍한 풍토를 비판한 내용이므로 ‘끔찍한(.)’ ‘창조=폰수’의 등식’이라야 혼란이 없다.)

김대통령 치료비 도둑맞은 김가빈양 위로(00.12.25. 동아 ○ 기자 제목, 김대통령의 치료비를 김 양이 도둑맞은 게 아니니, ‘김 대통령(김대통령’),’이라야 명확하다.)

--- 의원들이 식사 시간을 아끼려고 예전엔 외면했던 의원식당을 자주 찾는다는 얘기(7월24일자)가 그런 것들이다.(00.12.26. 동아 ‘S&P’ A5면 口 기자 제목: ‘S&P에 비친 2000년 정치’, ‘시간을 아끼려고, 예전엔’이라야 적확한 문장이다. 의원 식당이 멀어 시간을 아끼려고 예전엔 식당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다.)

100세 넘은 할머니 3명 이산子女 北생존 확인(01.1.31. 동아 속초=ㄱ 기자 제목, 할머니 3명이 각각 자식의 생존을 확인했는지, 한 할머니의 이산 자녀가 3명인지 모호하다. ‘할머니 이산子女 3명 北생존’이 아니니 짐작할 수 있긴 하지만, ‘할머니 3명.’이라야 쉽게 이해된다.)

1970, 80년대 학창시절 추억이 가득 배인 영화속 풍경은 --- (01.3.16. 동아 C8면 ㄱ 기자, 영화 ‘친구’ 소개 기사, 70, 80년대’가 아니라면, ‘1970, 80년대’는 ‘1970, 1980년대’, ‘1970~1980년대’, ‘1970·1980년대’라야 적확하다. ‘배인’은 ‘뻐’이 옳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속칭 ‘카드깡’ 범죄의 피해 카드회사가 동일할 경우라도 ‘포괄일죄’를 적용,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되며 카드깡 개별건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01.6.21. 문화 31면 ㄴ 기자 제목: 제목: ‘카드깡’ 件마다 개별범죄 성립, 피해 카드 회사별로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안되고 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인데도, 반점을 엉뚱한 곳에 찍는 바람에, 이 문장은 ‘포괄일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범

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적용'을 '성립한다'와 연관되는 말로 이해하기 쉬우니, '포괄일죄'를 적용해서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되며, 카드깡'으로 반점의 위치를 바꿔야 오해가 없다.)

검찰과 법원의 장영신 전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태도에 대해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은 경악했다.(01.7.18. 동아 A6면 '오피니언' 중 '氷墮 프리즘' 초 대우교수 제목:이해 못할 '법의 잣대', 시민 단체들이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 태도를 고발한 것이 아니고 장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을 고발한 것이므로, '태도에 대해, 고발했던' 이라야 한다. '대해'는 군더더기 말이니 '태도를 고발했던'이 좋다.)

국제교류 기금 폐지 안돼(01.8.3. 중앙 7면 '오피니언'의 '중앙 시평' ○ 교수 제목:국가홍보 제대로 합니까 중간 제목, 국제 교류 기금을 아직도 폐지하지 않았냐는 뜻으로 읽히므로, 문장 부호나 조사를 써서 '국제교류기금 폐지' 안돼(!) 또는 '국제교류기금 폐지는 안돼(!)'라고 해야 명확해진다.)

영화, 그리고 팝콘(01.10.15. K2TV 프로그램명, 반점은 불필요하다.)

'인터넷 민원' 전년보다 2.3배 폭증(02.2.16. 동아 A27면 'Metro/이슈와 화제' 스 기자 제목, '2.3배' 곧 '2배+3/10배'가 아니라 '2~3배', '2.3배' 또는 '2·3배' 폭증했다는 내용이다.)

"버스 정류장서 제대로 서야"(02.2.27. 동아 A30면 '사회' □ 기자 제목, 승객들은 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자는 말처럼 보이나, 버스는 정류장을 잘 지켜서 정차해야 한다는 말이다. '버스'로 주어를 명시해야 혼란이 없다. 일반적으로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美에 무역보복 전폭지지"(02.3.18. 한국 12면 '국제' 바르셀로나 AP AFP=연합 제목, EU 정상회담 폐막 때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전폭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다는 기사이다.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두고 미국에게 전폭 지지를 보낸다고 읽힐 수 있으므로, "美에(게) 무역보복(,) 전폭지지" 정도로 부호를 써야 오해가 없겠다.)

전문가들은 --- 수수료는 얼마나 붙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MOU가 발효되려면 채권단의 75% 동의, 이사회 통과 등 여러 단계가 남았지만 100%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대우증권 김창규 이사는 --- 신중히 결정하라고 조언했다.(02.4.26. 동아 B2면 '금융·증권' ㄱ김승련 기자 제목: '하이닉스債펀드' 손빼? 말야?, '단계가 남았지만 100% 통과될 상황' 이 아니라면 '단계가 남아 있어서 100%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야 호응하는 문맥이다.)

3. 띄어쓰기

여기에서 세세히 논의할 겨를은 없으나, 우리말의 띄어쓰기는 복잡하고 허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쉽게 알기 어려운 데다 논란도 있다²²⁾. 얼른 들어 보아도, ‘관용처럼 굳은 지 오래 되었다/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안되었다/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회사는 공사를 못한다²³⁾/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한다.’, ‘그는 뭘 듯이 기뻐했다/풍선을 불듯이 숨을 내쉬어라.’, ‘나도 갈테야/내가 먹을 테야.’, ‘신문을 정독한바 고칠 점이 있었다/앞에서 지적한 바를 유의해라.’, ‘김 씨가 한 일이다/그 마을에는 김씨가 많다.’, ‘역사상/가정 하에’, ‘연구 중/은연중’, ‘한 달간/부모와 자식 간’, ‘건물 내/여름내’, ‘배우는이는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같이 주의해야 할 말이 많다.

여백의 한계와 편집의 속성상 신문에서는 띄어쓰기를 엄격히 지키기 어렵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붙여야 할 말을 띄어쓰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단어를 묶는 데도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자(漢字)를 섞어 쓰는 것처럼, 신문의 띄어쓰기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제목은 차치하고라도, 한 기사에서조차 띄어쓰기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으니 기자의 무관심과 부주의에도

22) 예컨대 ‘잘 입다’가 표제어로 나온 사전은 모두 이 단어를 붙여 쓰고 있는데 반해 ‘표준 발음법’(제29항 붙임2)에는 ‘잘 입다’로 띄어 쓰고 있다.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 의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잘 입다’이고 옷 따위를 안목 있게 입을 줄 아는 것도 ‘잘 입다’이다(주 3)(2000b) 144쪽). ‘한글 맞춤법(문교부)’에는 ‘띄어 쓴다’라 하였으나 ‘띄어쓰다’가 표제어인 사전도 있다. 사전에 따라 ‘전(全, 前)’을 접두사로 또는 관형사로 보기도 한다. 전자라면 붙이고 후자라면 띄어 쓴다. ‘바른말 하는 사람 귀엽 못 받는다.’처럼 쓰이는 ‘바른말(=사리에 합당한 말)’은 사전의 표제어인데, 어법에 맞는 말은 ‘바른 말’로, ‘바른말’과 구분해야 하리라 본다. ‘입바르다’를 설명한 ‘바른 말’을 잘 하다.’(『옛센스 國語辭典』(민중서림, 2001))는 적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스스럼없이’를 표제어로 두고도 같은 항의 예문은 ‘스스럼 없이 말하다.’(上)이니 혼란하기 짝이 없다.

23) 하기는 하지만 잘·양·정도가 다른 것보다 낮거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신문의 띄어쓰기는 한마디로 너무 자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우리말글 사용을 위한 기자들의 노력과 주의를 촉구한다.

김대통령은 현 사태를 이총재의 통치권에 대한 --- (99.1.5. 조선 4면, '김대통령, 이 총재, 현사태'가 옳다. '한편 경찰은 채양의 ---' (01.10.5. 문화 31면 '사회' B 기자 제목: 짙은목숨 앓아간 외모중시 풍조, '채 양'이 맞다.), '매사에 똑 부러지는 안씨는 ---' (01.6.21. 문화 21면 'TV가이드' G 기자 제목: 여성 단독앵커의 당당한 '홀로서기', '안 씨는' 이라야 한다.) 같은 예는 너무 많아 일일이 들지 않는다.)

14년전 전기고문 물고문 후유증으로 서있기 조차 힘들어 어부를 포기했다는 남북어부 김성학씨도 그 기술자의 고문속에 있었다.(99.11.6. 제민 '허영선 문화칼럼' 제목: 인간에 대한 고문, '서있기조차', '김성학 씨도', '고문 속에' 정도는 고칠 일이다.), '무턱대고 대북 지원 사업을 부풀리기 보다는, ---' (00.4.19. 한국 '김창열칼럼', '부풀리기'는 '부풀리기'의 단순 오자일 것이다.)의 '보다는'이나, '--- 국내 인삼업은 내수시장 조차 빼앗길 상황에 ---' (01.8.18. 문화 2면)의 '조차'처럼 붙여야 할 말도 띄어 쓰는 일이 많다.)

"日 추방인물 김정남 확실/김정일 허가없이 日 방문 불가했" (01.5.10. 문화 30면 도쿄=聯合 제목, '불가능'을 띄어 쓸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日 방문(日방문) 불가능했' 이라야 한다.)

농경지 침수등/피해 잇달아(01.6.20. 동아 A30면 대구·울산=○·스 기자 제목, '침수등'을 '侵水燈, 沈水燈, 寢睡燈' 등으로 궁리해 보아도 뜻을 알기 어렵다. 여백도 있으니 '농경지 침수 등' 이라야 한다. '잇달아'는 '잇따라'가 바람직하다²⁴⁾.)

허 엽기자//고 미 기자(01.7.16. 동아 A16면 '문화'//02.4.27. 제민 7면 '경제' (01.7.16. 동아 A16면 '문화', 성과 이름은 붙이고²⁵⁾ '기자'는 띄어야 한다.)

24) '잇달다'와 '잇따르다'의 차이점은 주 3)(2002a) 29~31쪽에서 검토하였다.

25)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으나 ('한글 맞춤법'(제48항)), 예시된 '남궁역/남궁 역'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이 '남'인 경우에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남 궁 역'으로 쓸 수 있으니 이 또한 예시해야 한다고 본다. 모성까지 넣어 쓰는 경우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 '조김영희/조김 영희'도 앞으로 예시해야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인 외자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文件서 공격전 심경 엿보여/행동대원 “신중하라” 조언도(01.9.29. 전북 4면 ‘종합’/연합뉴스 제목:테러범들 “흔들리지 말자” 중간 제목, ‘신중하다’는 ‘신중히 (해라)’ 라야 하고, ‘공격전’은 ‘攻撃戰’ 처럼 읽히니 ‘공격 전’ 이라야 ‘攻撃 前’으로 쉽게 이해된다. 부득이 붙여야 한다면 ‘攻撃前’이 낫다.)

“발작물도 감글 못지 않게 지원”(01.11.16. 제민 2면 ‘종합’의 ‘무공침’ ㄱ 기자/스 기자/ㅂ 기자 제목, ‘못지않게’ 라야 한다. 일부러 띄어 쓸 이유도 없다.)

--- 관광 제주의 ‘역할’ 까지 수행한다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02.4.27. 제민 7면 ‘경제’ ㄱ 기자, 제목:지금 재래시장이 변하고 있다. ‘데’는 띄어야 한다.)

IV. 結論

언어는 단순한 의사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정신)를 담는 그릇이다.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 생활에서 나온다. 언론 매체의 우리말글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을 좌우한다. 따라서 언론 매체에서 바르고 고운 우리말글을 사용해야 사회도 더 맑아진다고 믿는다.

사실 보도와 논평이 위주인 기사문은 무엇보다 문장을 짧고 쉽게 써야 한다. 서술어를 열른 알 수 없는, 요령부득의 긴 문장을 쓰는 경향과 포장에 치중하여 현학적으로 쓰는 풍조는 하루바삐 고쳐야 한다. 이를테면 평이한 연설 또는 논평이 오고간 것을 두고 ‘대화의 수사학, 담론, 대항담론’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른바 ‘지식인’의 병폐라고 본다. 그런데 객관적이고 직설적이어야 할 신문 기사가 이를 좇으려는 경향이 보여 안타깝다. 우리나라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가 없다고 볼 때, 다양한 독자층을 고려하여 자상하고 친절하게 기사를 써야 함은 물론이다.

독자는 보통 기사 제목을 보고 정독(열독)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제목을 붙일 때 어색하거나 틀린 말을 쓰는 일이 적지 않다. 편집 기자의 끊임없는 연수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선 기자는 물론 방송의 자막

표기자, 탤런트, 리포터, 아나운서, 방송 PD, 방송 기자, 드라마 작가, 구성 작가 등은 바른 우리말글을 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발음에 한해 보면 성우도 예외일 수 없다. 발음은 물론 띄어쓰기, 표제어, 뜻풀이도 사전마다 달라 혼란한 데다 기준이 될 만한 사전이 없다고 할 만한 실정이라는 하다²⁶⁾. 여기에 더해 허술한 점이 많은 어문 규정은 바른 우리말글 구사를 더 어렵게 하지만, 언론 매체 종사자는 우리말글의 길잡이라는 사명감을 지니고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

물론 언론의 일차적 목적이 바른 우리말글 구사와 보급에 있지는 않지만, 다른 어느 매체보다 영향력에서 단연 앞서기 때문에 언론의 소임은 크다. 신문보다 방송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의 우리말글은 더욱 중요한데도, 방송은 신문보다 오용이 훨씬 많다. 아마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우리말글 구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출연자가 많은 데다, 제작진이 우리말에 무관심한 탓일 것이다. 이 글에서도 방송의 예를 조금 보이긴 했으나, 신문보다 오염이 심한 방송의 우리말글은 따로 검토하겠다.

이 기회에 문인, 학자, 지식인 들의 각성도 촉구한다. 비판 정신을 지니고 문화를 창조·전달·응용하는 일은 바른 언어에서 나온다. 일선에서 학생을 직접 대하는 초·중·고 교사의 우리말글 사용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교사의 책임 또한 크다. 이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도 당부한다.

이 글은 특정 언론 매체나 특정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밝힌다. 우리말글의 혼돈 상태가 얼른 가셨으면 하는 충정에서 논의한 이 글이, 언론 종사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의 성격상, 맞게 쓴 말이나 정확한 표현을 거론하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란다. 덧붙여, 신문의 바른 우리말글을 위해 애쓰는 전국의 교열부 기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

26) Cf. 주 3)(2001c)에서 현존 국어사전의 문제점을 일부 검토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국어연구원, 「표준 국어대사전」, (주)두산 동아, 1999.
- 문교부, 「한글 맞춤법」(부록 '문장 부호'), 「표준 발음법」(1988.1. 고시)
——, 「국어어문규정집」, 1990.
- 민현식,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1999.
- 편집국 편, 「엣센스 國語辭典」(제5판, 전면개정판), 민중서림, 2001.
-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1991.
- 新村出, 「廣辭苑」, 岩波書店, 1991.
- 경향·동아·문화·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전북·제민·제주·교수·대한교원신문·샘이 깊은 물(00.7월호)·KBS TV·MBC TV(Radio)·EBS TV.
- 李炳甲, “격조사의 중복에 대하여”, 「말과 글」 제68호, 한국교열기자회, 1996.
- 이수열, “해괴하게 쓰는 인용 조사 ‘라고, 라는’”, 「말과 글」 제71호, 한국교열기자회, 1997.
- 장재성, “文章의 凝縮化와 ‘의’ 처리- ‘의’ 표현과 교열의 문제-”, 「말과 글」 제68호, 한국교열기자회, 1996.
- 정재도, “우리말글 다듬기(9)”, 「신문과 방송」 제364호, 한국언론재단, 2001. 67쪽.
-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a.
-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b.
-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a.
-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 “國語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집, 제주학회, 2002a.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틀리거나 어색한 말, 표현의 문제”, 「瀛州 語文」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b.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論議-일(영)어의 잔재”, 「耽羅文化」 제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c.
- ,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濟州 地域 新聞의 外國(來)語 誤·濫用”, 「인문학 연구」 제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d.